

그것

그것은 바로 ... 그게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 그걸 원했지만 쉽지 않고 어려웠다. 그건 전혀 웃기지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없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진짜로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닐까,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던전' 같은 말로 표현해버리면 영 별로라서 말이지.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것마저 대개는 그가 재차 매개하며 창안하는 관계(조금 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냥 '제스처'라고 써보자.), 시각성, 사물의 새 지위(role) 같은 것일 테다.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안전하게 보증하기 위해? 그것이 내가 정확히 20분 24초 동안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아이패드의 검은색 바탕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빨간 점을 멍 때리고 보면서 한 생각이었다. 그건 으레 선언문이 풍기는 엄정함이나 과격함과는 거리가 좀 있다. 그것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처럼) 내가 곧잘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공부를 하고 글을 쓴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궤적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려야 하는 일종의 지도다. 그런 일을 해 보고 싶어. 그런 일을! 그걸 정하지? 그것들이 내 머리를 떠날 때에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것은 독자 자신에게 맡긴다.